

우리는 너무 일찍 삼페인을 터뜨렸습니다.

지난 30여 년 간 우리는 엄청난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하면 된다는 굳은 신념으로 경제개발에 매진한 결과, 높은 경제성장을 기록, 보릿고개라는 용어가 없어진지는 이미 오래 됐고 이제는 선진국으로의 진입을 위한 재도약의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역작용으로 자신과 소속집단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기주의, 일부 여유 계층에서 시작된 호화·사치·낭비풍조는 사회 구석 구석까지 번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어렵고, 더럽고, 위험한 일을 기피하는 3D 현상과 함께, 쉽게 일하면서 높은 보수를 받고 적게 일하려 하는 경향이 팽배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걱정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함께 참여하여, 근검절약과 일하는 풍토 조성에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일하는 풍토 조성을 위해 버려야 할 10대 사고 방식

- 무사안일 - 열심히 일한다고 봉급 더주나?
- 적당주의 - 처삼촌 벌초하듯 대충 대충하지 뭐…….
- 소신부족 - 타부서는 어떻게 하지?
- 주인의식 부족 - 내 일이나 네 일이나, 누군가 하겠지…….
- 권위주의 -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것이지…….
- 냉소주의 - 우리 사회는 똑똑한 사람이 많아,
그 사람보고 해 보라고 해!
- 기회주의 - 출세하려면 줄을 잘 서야…….
- 책임회피 - 이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닌데…….
- 형식주의 - 규정에 그렇게 돼 있어서 어쩔 수 없어…….
- 패배주의 - 이거, 이렇게 해서 실패하지 않을까?

